

목표달리다



익산소방서 재난피해주민 지원

익산소방서가 화재 및 구급 피해를 입은 재난피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나눔 문화 확산과 아픔에 한번 더 다가가는 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익산소방서 직원들은 12일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피해주민 3명을 찾아 각 30만원씩 총 90만원의 위로금과 기초소방 시설을 전달하고, 기본적인 건강검진 및 청소 등의 생활환경 개선활동을 했다.

재난피해주민인 정00씨는 "희롭게 사는 늙은이를 어려울 때 도와주고 다시 찾아와 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강원석 소방서장은 "익산시민들이 안전을 넘어서 안심으로 갈 수 있도록 위급상황 시 출동 뿐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감사 할 수 있는 익산소방서가 되겠다"라고 전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익산공무원노조-원광대병원 협약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과 원광대병원장예식장이 지난 1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익산시 공무원들은 장례식을 원광대병원 장례문화원과 전주에 소재한 윤교를 장례식장에서 치를 경우 시설 이용료20~30%, 기타 정의용품 제공 등의 혜택을 보게 됐다.

이날 행사에서 원광대병원장예식장 안기 대표는 "익산시청 공무원과 그 가족이 치르는 장례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김상수 위원장은 "원광대병원장예식장의 익산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협조에 대하여 조합원을 대표해 감사드리겠다"며 "익산시 소재 업체를 최대한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익산시 모현동주민센터 사회보장협의체 발대식

익산시 모현동주민센터는 복지허브화의 일환으로 12일 모현동 '희망동행'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발대식을 갖고 지역사회의 총총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발대식에 참여한 '희망동행' 협의체 위원 26명은 복지전문가, 의사, 변호사, 노인·이동센터장, 학교장, 종교인, 은행지점장, 건설사대표, 지역발전위원회,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위원들은 위기가정 발굴을 시작해 지역 복지지원 발굴·연계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복지활동 참여·협력 지역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및 지역사회 특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 나운2동 이한희 작품전

군산시 나운동주민센터 시민갤러리에서는 '이승 이한희 작품전'이 한창이다. 나운2동 시민갤러리는 주민센터를 찾는 모든 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자유롭게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지난해 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주민센터 프로그램 강사들의 한국화 및 수채화 작품과 서양화 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면서 주민센터를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작품전은 한국화 작가 이승 이한희의 작품전으로 나운동 시민갤러리에서 처음 전시되는 외부작가 전시회이며 다음 달까지 진행된다.

/군산=문정근기자



고군산연결도로·야외수영장 주차 등 편의시설 확충 시급

여름 특수 맞아 관광객 많이 찾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 불편 커

지난 주말 고군산연결도로와 군산시 소룡동 야외수영장이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방문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군산시에 따르면 고군산연결도로 방문객은 5일 개통 후 지난 10일까지 총 6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고군산연결도로를 찾은 관광객들은 여객선을 통해 방문할 수 있었던 섬을 차량이나 자전거, 도보로 이용해 고군산도로 전경을 바라볼 수 있다는 자제민으로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8일 개장한 소룡동 야외수영장은 총 5600여 명이 방문했으며, 이용객 입장료 수익은 총 2066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룡동 야외수영장은 그동안 물놀이 시설이 부족했던 군산시에 새로운 여름 피서지로 떠오르며 어린이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다.

이곳은 부지면적만 약 1만1000㎡에 달할 정도로 넓은 공간에 성인풀, 어린이풀, 유아풀과 놀이시설인 슬라이드 2개소, 종합놀이시설, 분수대, 카페 테리아 등이 설치돼 다양한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이처럼 고군산도로 연결도로와 야외수영장은 여름 특수를 맞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고군산연결도로는 개통 당시부터 우려됐던 주차난과 함께 교통체증, 섬마을 진입 제한, 화장실 등이 개선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군산시는 주차난 해소와 위해 인근 해상안전센터와 새만금 신시도 휴게소 등에 5600여의 주차공간을 마련했지만 밀려드는 차량을 수용하기에 역부족이다.

또한 신시도와 무녀도는 관광객들의 수산물 무단채취 등이 잇따르자 결국 마을 자체에서 차량과 관광객 진입을 제한하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관광객 김모(50)씨는 "새만금상조제에 이어 고군산도로를 연결한 도로가 개통됐다는 소식에 현지를 방문했지만

만도로는 좁고 주차장은 부족하고, 잠깐 내려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도 없었다"며, "또한 곳곳에는 각종 금지 현수막만 나무끼는 등 아무런 부분개봉임에도 과연 관광객을 오라는데, 오지말라는건지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소룡동 야외수영장 또한 주차시설 부족으로 이용객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으며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 시설이 많지 않아 자리 확보를 위한 치열한 자리싸움도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일부 이용객들은 음식물 반입 금지임에도 무단으로 반입해 음식물을 섭취하는 등 시민의식 개선도 지적되고 있다.

시민 박모(45)씨는 "군산이 근대문화도시에 이어 새로운 관광자원을 통한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 관광객 맞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해경, 휴가철 유람선 안전관리 강화

다음달 17일까지 현장정보·단속 병행 승객 안전 확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경이 유람선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군산해경명비안전서(서장 장인식)는 안전관리 강화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다음달 17일까지 유람선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현장정보와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해경에 따르면 관내 운항 중인 유람선은 총 5척으로 새만금 비응화파 미도항을 출발해 고군산도로를 돌아보는 코스를 운항 중에 있으며, 연 평균 13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관광유람선(관광홍선)으로 지정된 유람선의 경우 선내 음주가 가능하고 사설공연이 가능해 해양사고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유람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승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사전에 집중 점검할 예정으로 유람선 승무원 교육을 비롯해 전문가로 구성된 선박안전 기동점검단을 편성하고 선박과 시설물에 대한 불시 지도·점검에 나서는 한편, 실제 승객으로 탑승해 실태파악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8일 '유선 및 대선 사업법' 일부가 개정 시행령에 따라 ▲기

상복보 시 운항기준 및 절차 준수 ▲선원 종사자 비상대피훈련 의무 ▲보험가입 등 필요사항 등의 현장 이행 여부를 살피고, 이용객 신원확인제도 이행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유람선을 이용해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해상운송 여객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해경은 지난해에 실시한 휴가철 유람선 사전점검에서 13건의 안전위해요소를 사전에 찾아내 시정 조치한 바 있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49억원 부과...역대 최고치 기록

군산시 재산세 부과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2일 군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2만1000건 24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7월 부과액 228억원 대비 23억원(10.2%)이 증가한 것으로 재산세 7월분 실적으로는 지난해에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164억9000만, 지역지원시설세 65억6600만원, 지방교육세 18억9100만원이다.

과세대상별로는 건축물 164억9000만원, 주택 82억3600만원, 선박 6900만원, 항공기 7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증가사유를 살펴보면 그동안 지속적인 기업유치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분의 과세전환(5년경과)과 3배중과 대상 공장기준의 확대, 대영건축물

신축 등으로 339건(15억3100만원)이 증가했다.

또 아파트, 주상복합 원룸 등 신규 건축물의 꾸준한 증가로 2082건(6억9800만원) 선박 34건(1500만원) 항공기 신규 등록 5건(5900만원) 등이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건축물의 경우 7월 전액을 부과하고,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액을 기준으로 1/2을 부과하고 9월에 나머지 1/2을 부과하게 된다.

다만 본세 10만원 이하 주택은 건축물과 같이 7월에 전액 부과한다.

이번 7월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이며, 시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한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납세고지서 전면에 과세물건,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를 배치하여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모바일 지방세 납부 서비스인 '스마트 위택스'가 도입가동 중에 있다.

이와 함께 군산시지방세 ARS납부시스템(1588-5663)과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신용(현금)카드·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a.ir),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군산=문정근기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업체 모집

창의적 식품 기술·아이디어 보유 예비창업자 육성

농식품부, 전북도, 익산시는 최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거나 수출 지향적·고부가가치 제품 생산계획을 가진 식품벤처·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 9월 초 완공을 앞둔 국가 식품클러스터 식품벤처센터의 입주 업체를 모집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설립되는 식품벤처센터는 연면적 8.179㎡(약2,474평), 지상 3층 규모의 식품안전시설을 갖춘 '식품전용 임대형공장'으로 총 52실의 임대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평균 임대 면적은 158㎡(48평)으로 기업이 원하는 대로 다양(약21평~132평)한 면적으로 제공되고 임대료는 1층과 2·3층간에 층고와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었으며, 임대기간은 기본 5년, 최대 15년까지이다.

입주하는 업체는 신제품 개발 등에 필요한 기업지원 연구개발시

설(식품품질안전센터, 식품기능성 평가지원센터, 식품패키징센터)과 연구 장비·사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원료확보·인력조달 및 수출지원 등 기업 중심의 One-stop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입주 신청자격은 국내외 식품제조업체(신료제조업체, 음료제조업체), 국내외 식품산업관련 연구소, 국내외 식품관련 기관·단체·협회 및 창의적인 식품관련 기술 또는 아이디어 등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창업자이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입주기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예정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는 7월13일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 홈페이지(www.foodpolis.kr)에서 필요한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하여 접수 기간인 8월29일~9월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보건소, 금연지정구역 홍보활동 시작

군산보건소는 '금연은 현장에서부터 시민의 흡연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취지로 금연구역 지정고지서와 관리부서와 연계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은파호수공원, 월명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공인지역의 범위가 넓다보니 홍보 및 계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군산시는 상시 홍보방안으로 관할부서의 기간제 근로자, 공인 산별 감사원, 노인자치회 참여자, 청소인력 등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을

통한 금연 홍보에 나섰다.

보건소는 시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문구와 로고를 넣은 금연홍보용 조끼를 50벌 제작, 관할부서인 산업복지과, 관광진흥과에 배부하여 가용 인력들이 상시착용하고 근무토록 함으로써 금연구역 홍보를 하고 있다.

금연구역 홍보를 통해 어린이 등 가족단위로 많이 찾는 공원에서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민원제기 또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문정근기자

고용부군산지청 외국인 채용사업장 임금체불 적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은 전북도서(어업)지역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임금체불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관내 12개 도·시·군에서 시·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어업 및 어업장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총 146개소(147명)의 감독 대상 중 33개소에서 외국인근로자 34명의 임금 등 1억4200만원을 체불한 사실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적발업체 가운데 임금청산이 되지 못한 7개소는

사법처리 했으며, 3개월 연속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8개소는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와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조치(1년)를 내렸다.

김정수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감독으로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및 도·외국인 고용사업장의 준법 의식 확립의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감독 및 사업주 교육 등으로 지속적인 제도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근기자

익산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익산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마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여 마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시에 따르면 마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사업은 같은 시기에 동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함께 추진됨에 따라 시정역전 상 사업이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면담을 갖고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해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익산시 중앙로 25길 5-4 일원에 들어

세계 빌 마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총 4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지상4층 연면적 1,968㎡ 규모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다목적문화방 등 행정·문화복합시설로 지어지며 2018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용연 기획예산과장은 "앞으로도 제9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준비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정·자치부의 공조를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익산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사업 내달까지 접수

익산시는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와 문화·학습활동을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 사업'의 지원신청을 오는 8월 31일까지 받는다.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 사업은 반복적인 농작업과 가사노동으로 인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3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중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이 5만㎡미만인 농

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을 경영하는 가구의 여성 농업인이다.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건강보험증 사본,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농업정책과를 방문한 뒤 신청서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은행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고 1인당 연간 12만원 한도 내에서 올 12월 31일까지 스포츠용품, 미용실, 안경점, 화장품점, 영화관, 서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익산=정양원기자